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4호

I

딸기 · 포도 '특수저장고' 에 넣어
더 신선하게 수출



II

수출 딸기 '킹스베리' 재배농가 어려움,
속시원하게 해결



III 2022년도 신선농산물 수출검역요건 교육 계획 알림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4호 2022. 1. 28(금)

‘21.12.31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한 113.5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10.0% 1,570.6백만불	13.4% 6,958.4백만불	22.3% 2,818.6백만불
+ 인삼류, 김치, 포도, 돼지고기 - 닭고기, 버섯류, 파프리카	+ 과자류, 커피조제품, 음료, 면류 - 연초류, 주류, 생우유, 캔디	+ 김, 참치, 굴, 대구, 명태 - 미역, 고등어, 톳, 바지락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1,655.4백만불(8.9%)	K-Food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삼, 김치 등 전통식품 중심 상승세	소스류(10.7%), 인삼류(22.9%) 김(12.6%), 쌀가공식품(21.7%) 음료(△1.3%), 라면(△1.3%)
중국 2,065.8백만불(30.7%)	소비장려 정책과 K-Food 인기 증가세 힘입어 1위 수출국으로 부상	김(38.2%), 과자류(42.3%) 음료(46.2%), 인삼류(25.1%) 어묵(△12.0%), 소스류(△6.4%)
신남방 (ASEAN + 인도) 2,314.1백만불(17.4%)	한류 인기 중심 음료, 소스, 딸기, 포도 등 호조로 최대 수출액 달성	음료(11.4%), 김(12.7%) 라면(12.6%), 커피조제품(25.2%) 참치(△11.8%), 장류(△9.3%), 닭고기(△15.4%)
일본 2,057.5백만불(3.1%↑)	라면, 김치, 소스류, 쌀가공식품 등 가정식 중심 수출 증가세 지속	김치(12.7%), 참치(16.7%) 식초(33.8%), 라면(19.7%) 김(△14.1%), 주류(△5.2%)
EU + 영국 709.4백만불(28.0%↑)	K-Food 인지도 상승으로 김, 라면, 김치, 음료, 소스류 등 고른 수출 호조	참치(32.1%), 라면(23.4%) 김(53.5%), 소스류(52.2%) 커피조제품(△15.2%)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4호 2022. 1. 28(금)

품목별 이슈

* 실적 : '21.1.1 ~ 12.31

□ 인삼

- (미국 34.4, 22.9 ↑) 아마존 등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진입, 인기 증가세에 일반 식품 바이어까지 유통 확대되며 수출 증가
- (중국 102.6, 25.1 ↑) 건강식품 관심 증가, 연말 연초 프로모션 대비 현지 재고 확보로 수출 증가
- (일본 34.0, △11.1) '21년 도쿄올림픽 개최 특수 기대한 현지 바이어 '20년 4분기 발주 급증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수출 감소

267.0백만불(16.2%)

주요 수출국 : 중국(102.6백만불, 25.1%), 미국(34.4, 22.9%), 일본(34.0, △11.1%), 베트남(29.4, 34.6%), 홍콩(23.6, △0.7%), 대만(20.5, 16.0%)

□ 김치

- (일본 80.1, 12.7 ↑) 가정용 소비 증가영향으로 수요 증가추세이나 코로나 확진자 급감으로 증가세 소폭 둔화
- (미국 28.3, 22.5 ↑) 다양한 종류에 김치가 현지 시장에 진출하며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세 지속

159.9백만불(10.7%)

주요 수출국 : 일본(80.1, 12.7%), 미국(28.3, 22.5%), 홍콩(7.7, △0.5%), 대만(6.9, 17.8%), 영국(5.5, 44.7%), 네덜란드(5.4, 5.8%)

□ 라면

- (중국 149.9, 0.5 ↑) 현지인이 선호하는 매운맛 라면 수요에 맞춰 젊은 소비자 대상 온라인 마케팅 확대에 증가세 전환
- (EU+영국 70.8, 23.4 ↑) 간편식 수요 확대에 따라 인지도 상승 및 수출증가세 지속
- (일본 65.3, 19.7 ↑) 간편식 및 매운맛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매운맛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실적 증가

674.4백만불(11.7%)

주요 수출국 : 중국(149.9, 0.5%), 미국(81.2, △1.3%), 일본(65.3, 19.7%), 대만(31.8, 34.9%), 태국(29.6, 10.4%), 필리핀(28.2, 19.0%)

□ 김

- (미국, 155.4, 12.6 ↑) 스낵류 김 인기 증가세 지속과 더불어 선복지원을 통한 대미 수출이 원활해지며 수출 상승세
- (중국, 139.4, 38.2 ↑) 중국 내 마른김 가공산업 발전에 따른 마른김 수요 지속 확대에 수출 증가세 유지
- (일본, 114.1, △14.1) 전년보다 낮은 김 쿼터계약에 따라 연중 전년대비 15% 내외 실적 감소세 지속

692.9백만불(15.4%)

주요 수출국 : 미국(155.4, 12.6%), 중국(139.4, 38.2%), 일본(114.1, △14.1%), 러시아(47.0, 50.4%), 태국(43.4, 2.8%), 대만(27.9, 5.1%)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딸기·포도 '특수저장고' 에 넣어 더 신선하게 수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호)은 2021년 12월 1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에이(CA) 컨테이너를 이용해 딸기, 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 새송이버섯, 고구마 등을 배에 실어 홍콩으로 시범 수출한다.

CA 컨테이너는 온도, 습도를 비롯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등 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CA저장 기술을 농산물 수송 컨테이너에 적용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수출에 앞서 다양한 품목으로 CA컨테이너 모의 수출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딸기는 10일간 모의 수송 후 부패율이 일반 컨테이너 보다 50% 이상 낮았고, 복숭아는 3주 후에도 초기의 단단함이 유지됐다. 포도와 버섯은 3주, 5주간 모의 수송 후에도 품질이 잘 유지돼 유럽 등 장거리 수송에도 기술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비해 선박수출 기술을 선진화하고자 2021년 긴급히 CA컨테이너 연구에 들어갔었고 앞으로 주요 수출 품목을 단일 또는 혼합 선적하는 최적의 조건을 확립하고,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간 개발한 기술과 접목한 복합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CA 컨테이너



모의수송 연구결과



수출 딸기 '킹스베리' 재배농가 어려움, 속시원하게 해결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호)은 현장 연구실을 통해 대과형 딸기 '킹스베리'를 재배하고 수출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일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클로렐라 처리를 통한 흰가루병 감소와 꿀벌 피해 저감 △화분매개용 꿀벌의 표준화 관리기술 △GAP 실천기술 △수확용 완충 운반차와 라텍스 재질의 수출용 포장 등이다. 클로렐라 대량배양 최적화 기술을 통해 '킹스베리' 경도를 10~30% 높이고, 흰가루병 발생은 20~24% 줄일 수 있었다. 약제 사용을 줄인 친환경 처리 덕분에 꿀벌 피해가 감소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화분매개 전용 벌통을 통한 온도와 먹이 관리로 겨울철 딸기 상품 비율은 6% 높아졌으며, 꿀벌 수명도 56일 늘었다. 또한, '킹스베리'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술 상담(컨설팅), 인증 교육, 지침서 제공 등 실천 기술을 지원해 집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완충 운반차와 라텍스 재질의 수출용 포장재를 개발해 수확과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상품화 과일 비율(5~10%)을 최대 1%까지 낮췄다.

이를 통해 흰가루병에 취약하고, 수분이 잘되지 않으면 기형과가 발생할 수 있는 '킹스베리' 재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배 농가가 필요로 하는 GAP 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 수확과 수출 도중 충격에 의한 물러짐 대처 방법 등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텍스 완충 수출 포장



화분매개 중인 꿀벌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2022년도 신선농산물 수출검역요건 교육 계획 알림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출 상대국 검역요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사과, 배, 포도 등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맞는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및 소속농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에서 재배 중 활용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력 및 농약안전사용 지침 등이 포함된 예찰 및 방제기록부 등을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수출 농가들의 검역요건을 준수에 길라잡이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관리 요령」 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수출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 요령을 일부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출단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의 참여농가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수출단지 지정에 제약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인접시군에 있는 걸쳐 있는 경우에도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검역본부는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출단지를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반드시 수출단지 지정을 받아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부합하는 농산물만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검역본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